



남원 아영면 복지공동체, 통합사례회의 가져

남원시 아영면 복지공동체는 지난 2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생활불편 개선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지마을 주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청 희망복지팀과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 모색 후 장판 교체 도움을 결정했다.

올해 3월 출범한 아영면 복지공동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생활 불편 사항이 발생할 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소규모 긴급수리(전구, 수전, 콘센트 교체 등), 주거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안전점검(전기, 가스, 소방안전 점검 등) 등 가구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불편 사항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위기가구 중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제외자 중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를 거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가구당 70만원 이내에 생활 안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아토피 이기는 밥상만들기'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4일 남원아이룸에서 아토피 진단 등록 가족을 대상으로 '아토피를 이기는 밥상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생활지도사와 함께 △아토피 동화교육 △채소를 활용한 요리체험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는 교육으로 주말반과 평일반으로 편성했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진단등록자에게는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도 하고 있으니 보건소 모자보건팀(063-620-79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황산면 사회단체와 새봄맞이 대청결운동 실시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깨끗하고 쾌적한 황산면을 만들기 위해 '황산면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청결 활동에는 황산면 이장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및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농촌지도자회 등 13개 황산면 사회단체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두월천 및 도로변 등 생활 주변에 쌓인 각종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으며,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항공우주 분야 반도체 손상 원인 분석법 개발

전북대 배학열 교수 · 서울시립대 김태완 교수 공동연구팀 연구 성과

전북대학교 배학열 교수(전자공학부)와 서울시립대 김태완 교수(첨단융합학부)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차세대 항공우주 분야 반도체의 손상 원인을 정밀하게 찾을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



유재욱 전북대 석박통합과정생



배학열 전북대 교수



김태완 서울시립대 교수

물 반도체 경우 밴드갭 내 산소 공공이라는 결함을 갖고 있는데, 연구팀은 IGZO의 밴드갭보다 작은 광자에너지를 갖는 다양한 광원을 조사해 결함의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차세대 메모리에 적용되는 IGZO가 우주 환경에 존재하는 감마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화 메커니즘을 최초로 분석해 관련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인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 저널 최신호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IGZO는 인듐(In)·갈륨(Ga)·산화아연(ZnO)로 구성된 금속 산화물 소재로, 큰 면적을 차지하는 커패시터 없이 제작할 수 있어 소자의 집적도와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누설전류가 낮고 이동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특정 파장대역의 광원을 이용해 에너지 밴드갭 내 상태 밀도 함수 특성화방법을 개발했다. 산화

아나일 실리콘, 2D 채널, 그래핀 등 다양한 반도체 소재 및 미세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메모리 소재로 주목받는 IGZO는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해 높은 수준의 소자 신뢰성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방사선 환경에 노출돼 동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연구결과는 응용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배학열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항공우주용 반도체의 손상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법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높은 내방사선성을 갖는 반도체 소재 및 소자를 개발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시기동, 방치된 유희지에 주민 쉼터 설치

정읍시 시기동은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희지에 주민 쉼터를 새로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기존 설치된 쉼터를 정비해 초화류를 새로 식재하는 등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특히 중앙로 구간에 몇 년동안 방치돼 상습적으로 불법쓰레기가 투기되는 유희지에 조경석과 경관등을 설치하고 초화류를 식재해 주민 쉼터를 새로 조성했고, 이를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벚꽃로, 남북로, 관동로 구간 등 기존 설치된 주민 쉼터에 발자압관, 퍼걸러를 설치하고 노후된 모정, 벤치 등 목재시설물을 도색하는 등 더 나은 주민 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금구면 복지공동체, 주거환경개선 봉사 펼쳐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공동체(대장 이미향)가 24일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2층 소회의실에서 대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도배 및 내부환경 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안방 내부에 벽지가 노후돼 불편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벽지를 새로운 벽지로 교체하고 주거의 내부 환경을 정비했다.

이미향 복지공동대장은 "화사해진 집을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재성남 호남향우회, 임실군 방문

재성남 호남향우회(회장 김중술) 회원 400여 명이 지난 21일 2024년 춘계 고향 방문 행사 일정으로 임실군을 방문했다.

재성남 호남향우회는 호남에서 출생했거나 선대의 고향이 호남인 사람 중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의 모임으로,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40만여 명이 소속돼 활동 중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임실군을 방문한 재성남호남향우회는 지난해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이어 올해는 옥정호 출렁다리과 봉어섬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수선화와 톨립 등 2만 4,000여 본의 봄꽃 식재 조성과 옥정호 수변의 경관과 어우러진 곳곳의 다양한 조경을 둘러보며 경관연출에 감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대 선교봉사처, 사랑 실은 자전거 타고 학생 부모 찾아가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는 '사자성어(사랑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를 어디든 간다)' 시즌3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진호 교수(선교지원실 특임교수)팀은 작년 2학기에 이어 이번에도 학생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이에 따르면 '사자성어'는 자기중심성과 권위주의가 강한 재학생들의 성품을 빚어주고, 부모님의 존재가 소중한을 깨닫게 해줘, 행복한 가정 사랑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이진호 교수, 김문택 교수, 박광수 동문(전 삼천1동장), 그리고 선교지원실 직원들도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흑삼 제조업체인 (주)진앤삼 생명공학연구소(대표 강성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부모님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 교수팀은 전주에서 출발해 봉동, 익산, 부안, 고창, 곡성, 광양, 영암을 최종목적지로 22일~26일 4박 5일 동안 총 560km를 이동하게 된다.



한편 자전거를 타고 1km를 갈 때마다 1,000원씩의 후원을 받는다. 후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주대 재학생을 위해 사용된다.

이진호 교수는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참으로 밝고 좋은데,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페달을 밟는다"며 "학생들에게 하늘 같은 부모의 존재와 가정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8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금연캠페인